



진안소방서, 농공단지 화재안전대책 추진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3일 오후 30일까지 공장밀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안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는 421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사망 1명, 부상 19명), 재산피해는 188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안에는 총 3곳의 농공단지에서 8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가 1곳으로 9개 기업에 근로자 125명이 근무하고 단지 내 시설 노후화가 심하여 화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노인복지센터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3일 오후 2시부터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회원에게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른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려요' 주제로, 평소 응급상황 시 대처가 어려워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에게 화재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화기 사용법, 119신고방법, 안전한 대피방법 및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과 음식물로 인해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익히고, 미끄럼 사고, 찢리거나 베이는 사고, 부딪힘 사고, 낙상 및 추락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유치원생 지구대 견학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중앙지구대는 지난 2일 유치원생들이 지구대 방문에 의해 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아이들 눈높이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지구대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찰 업무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이야기와 경찰 장구 사용방법을 선보였다.

박노근 지구대장은 지구대 견학 온 유치원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인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순덕 할머니, 평생 모은 3500만원 기탁

고향 칠보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홀몸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순덕(86) 어르신은 지난 2일 고향인 칠보면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3,5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르신이 평생 폐지 등을 수집해 일탈히 모은 돈이다.

박순덕 어르신은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공부를 포기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며



"고향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정관 면장은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고향으로 내려와 평생 모은 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금은 어르신의 뜻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주천면, 농촌 일손돕기 인력난 해소 총력

진안군 주천면(면장 김사홍)은 지난 2일 면사무소,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직원 등 20여 명은 주천면 용덕리 1,600여 평 규모의 농가에서 고추 지주데 세우기, 고추 순따기 등 일손 돕기를 지원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도운 것으로 지난주 대불리 일대의 고추 농가 일손 봉사에 이어 재개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작업 간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도구, 필요물품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도통동,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행정지원과 직원 30여 명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ha 규모의 복숭아 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복숭아 열매수기, 봉지 씌우기 등의 작업을 하며 서둘러 수확을 마쳐 농가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해당 농가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원들이 아침 일찍 찾아와 도와준 덕분에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상관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논의

완주군 상관면(면장 강형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에 나섰다.

3일 상관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상관면은 4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홍보 영상 시청,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위기가구 지원 사례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복지상담에 대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강형임 상관면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상관면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성덕면 여름철 하계 방역소독 실시

전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및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역대가 방역 소독에 앞장서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 자율방역대(대장 박상준)는 9월 말까지를 하절기 집중 방역

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모기 및 유해 해충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일몰 전과 일몰 후 3개 마을 취약지역 및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방역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집중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김제시 성덕면 이장협의회 최선열 이장은 "여름철 지역내 취약지역에 자율방역대가 앞장서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마음이 든



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대산면, 모내기 현장방문 풍년기원

남원시 대산면(면장 이동현)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2주간 7차례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방문에는 대산면장(이동현), 대산농협 지점장 등 대산면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했으며, 올 한해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코로나 19,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남원 대산면은 남원 대표 브랜드 쌀인 남원 참미단지(운교,신촌,육을)를 중심으로 총 550여 농가가 49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